

인권지킴이단 회의록

일 시	2021년 5월 11일(화) 오후14시~15시	장 소	면회실
참 여 자	외부전문가 : 이준혁 부산라이트하우스 소장, 이미현 꿈뜰 원장 직원대표 : 박은영, 김광재 보호자대표 : 양*엽 (이*수 생활인 보호자)		
안 건	<정기회의> 1. 2020년 2차 회의 주요내용 결과보고 2. 2021년 권익옹호 사업 안내 3. 2021년 인권상황 점검 결과보고 4. 기타 질의 및 논의사항		
회 의 내 용	1. 2020년 10월 27일 회의에서 논의한 사례의 경과보고. Ct의 수급권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 Ct에게 지원이 가능한 의료지원서비스를 지역사회(병원, 서구청 등)에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2021년 인권상황 점검 결과보고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 질문지 문항이 신뢰도가 있는 문항인지 의문이 있어, 질문지를 같이 첨부해서 회의하면 좋겠음. 질문내용이 생활인에게 의도한 내용대로 전달되기에 추상적인 질문이 있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구체적으로 풀어서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질문지보다 면담을 통한 질적 평가를 실시하면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생활인에 특성에 맞는 적절한 도구(시각적 자료, 문항내용)를 개발하여 진행하였으면 함. 3. 생활인들은 직원에 비해 인권보장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병동모임에서 문항별로 인권과 관련된 주제를 정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안은 긍정적임. 병동모임 외에도 간부회의 및 직원 간 회의를 통해 생활인과 직원에 대한 인권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천함. 4. 생활인의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전화요청으로 가족이 업무를 볼 수 없는 스트레스에 관한 상황은 타기관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이며, 생활인에게 전화사용 통제를 하는 것은 인권에 침해되는 상황임. 생활인은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말벗봉사자연계 및 직원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욕구를 해소시키는 방안을 추천함. 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에게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경우 직원에게 돌발행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돌발행동을 교정하였으면 함. 돌발행동 교정의 방안은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사들 간의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대처 방안을 알아야할 필요성 있음.		
사 진			